

6월 FOMC 리뷰



김호정 Economist
hojung.kim@yuantakorea.com

임지윤 Research Assistant
jiyoon.lim@yuantakorea.com

여름까지 이어질 Wait and See

1) 연준, 기준금리 동결 속 사실상 매파 전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는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 새롭게 발표한 점도표를 통해 3월과 같은 2회 인하(3.875%) 중간값을 유지했다.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6월 성명문에서는 실업률에 대한 “안정화(stabilized)” 표현이 제거되었다. 물론 여전히 실업률이 낮다는 의견은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 불확실성의 경우 “증가(increased further)” 문구는 삭제되고,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다(diminished but remains elevated)”로 변경되었다.

올해 금리 인하 견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매파적인 입장을 강화했다. 점도표 세부 내용을 보면,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 위원이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명의 위원은 기준 1회 인하에서 동결로 입장을 전환했다. 반면 10명이 2회 이상 인하를 지지하며 여전히 전반적 관점은 완화 쪽에 무게를 뒀으나, 점도표의 상단 쓸림이 뚜렷해지며 실질적으로 매파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2) 성장률 하향·인플레 상향, 긴축 지속 여지 시사

경제전망요약(SEP)에서는 성장률 하향 조정과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연준은 2025년 성장률 전망을 3월 1.7%에서 1.4%로, 2026년도 성장률 전망은 3월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2027년은 1.8%로 기존 경로를 유지했다. 반면 2025년 실업률 전망치는 4.5%로 소폭 상향(+0.1%p) 조정하며 2026년과 2027년 역시 3월 전망 대비 상향 조정되어 각각 4.5%, 4.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헤드라인 PCE와 근원 PCE는 각각 3.0%, 3.1% 상승을 전망해 3월 전망보다 각각 0.3%p씩 상향했다. 3%대라는 전망치를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2%대 물가 목표 수렴까지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기 금리 경로(2026~27년)도 25bp씩 상향 조정되며 고금리 유지 기간이 길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3) 파월 기자회견: 인하 명분 부족, 관망 기조 유지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labor market is not crying out for a rate cut)”고 밝히며, 현 시점에서의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통화정책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well positioned to respond)이며, 향후 방향은 데이터 확인 이후 판단하겠다는 관망 기조를 반복했다. 특히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관세 영향이 크며, “누가 관세를 부담할지는 불확실하다”는 발언을 통해 물가 예측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그는 “일시적인 인플레가 지속적인 상승요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앵커링 유지를 정책의 핵심 목표로 강조했다. 관세 정책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현재까지는 소비와 고용 여건이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세 충격이 상품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여름까지는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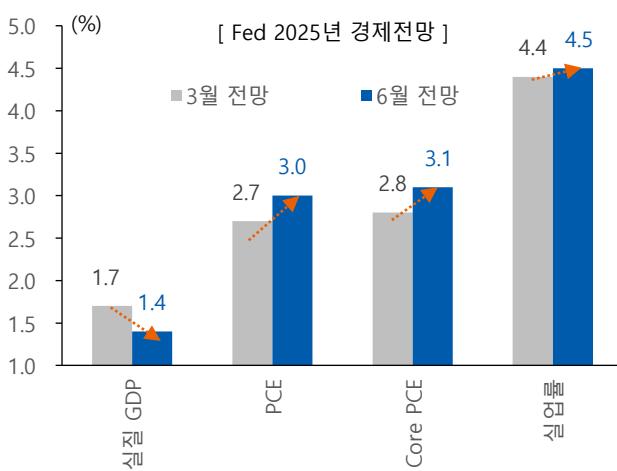
이어 파월은 “연준 누구도 현재 점도표 경로대로 기준금리가 움직일 것이라 강하게 확신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내부적으로도 금리 경로에 대한 확신이 낮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연준 인사들 간의 물가 전망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위원회 내부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정책 스탠스가 적절하다는 데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및 중요 공시는 Appendix 참조

4) 불확실성 앞에 지켜볼 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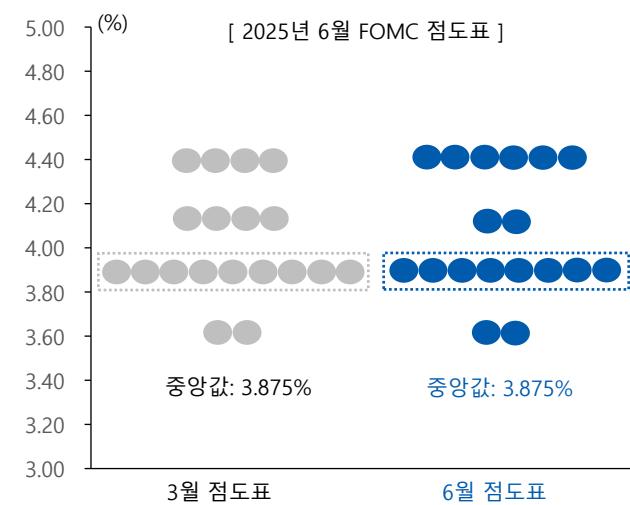
현재 시장은 올해 연내 2회 인하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으나, 연준은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일정 부분 열어 둔 상태다. 기자회견에선 “여름쯤 상황이 보다 명확해질 것” 언급과 함께 또다시 데이터 의존적 태도를 고수했다. 향후 정책 변경 여부는 관세 효과 및 소비 충격 확인, 에너지 가격 흐름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의 전망대로 연준은 3분기까지 관세 리스크의 향방과 실물지표의 연쇄적인 충격 흐름을 살펴보고, 관세 리스크 피크아웃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면 금리 인하를 재개, 연내 2회 인하를 전망한다.

SEP에서는 2025년 성장을 하향 조정과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



자료: Fe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점도표에서 3월과 같은 3.875% 중간값을 유지했으나, 매파적 의견은 증가



자료: Fe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김호정)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